

○ 대부도 에코뮤지엄 센터 : 면 ■ 사무소, 디자인 및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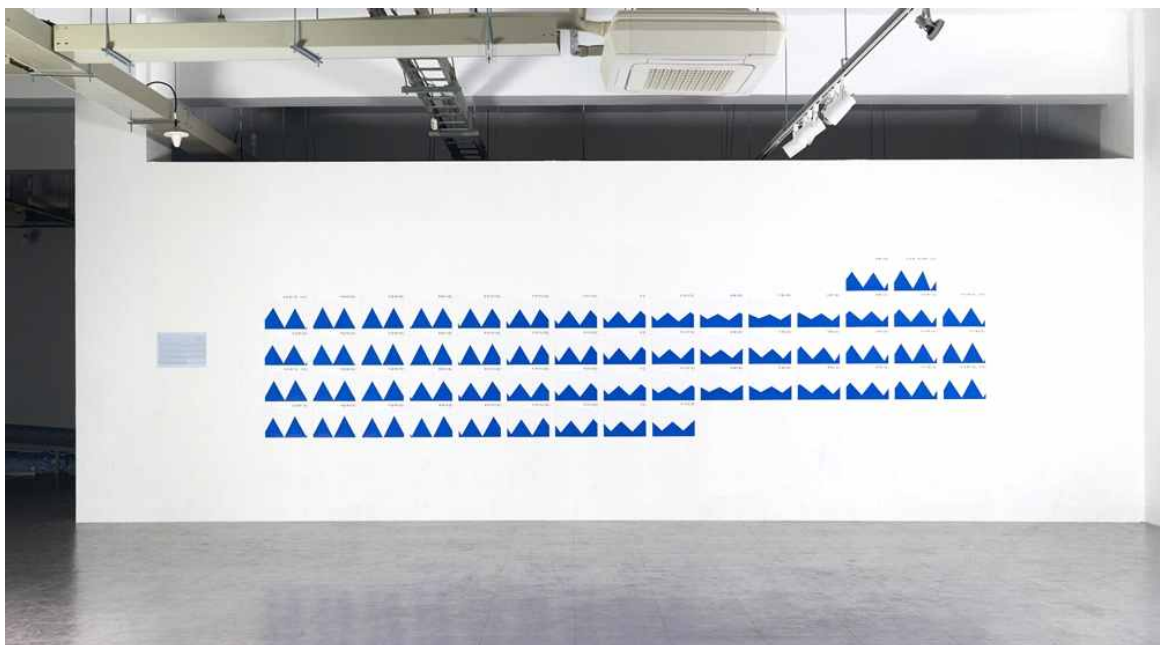
<대부도 에코뮤지엄 센터 - 면 ■ 사무소 시공 이미지, 2017>

○ 물 때 (tide time)

*바다에 생업을 걸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물때를 귀신같이 잘 알아야만 하고,
그 물때는 달의 모양에 달려 있으니.... 출처 : 최명희, 혼불*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물 때(tide time)라고 한다.
시화방조제가 놓이고 섬이 연륙되면서 대부도는 이제 더 이상 섬이 아니다.
뱃일과 갯일이 주요 생업이었던 대부도는 바다가 주요 생업 터가 아니며 그 정체성 또한 변화하였다.
섬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

‘물 때 - tide time’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있는 섬의 언어 -물 때 : 사리, 조금, 무시를 시각화하며
대부도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섬의 잊힌 감각을 소환한다. 본 프로젝트는 마지막으로 대부도 상동에
‘물 때 - 마을 광장 (가제)’를 조성하여 섬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물 때 Tide time, Mixed Media, installations variable, 2017>

○ 물 때 조형 + 마을 공원 제안 , 대부도 상동 (농협 옆 주차장)



<물 때 조형(조각) +마을 공원, 3D, 시안, 2017>

○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한백초등학교, 동탄중앙이음터, 화성, 2017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설치전경, 한백초등학교, 동탄중앙이음터, 2017>

○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이담초등학교, 두드림작은미술관, 동두천, 2017



<친구와 함께... 선반프로젝트, 전시전경, 두드림작은미술관, 동두천, 2017>

○ 육지환상

대부도는 더 이상 대부島는 아니다. 그 예전에 어떤 풍광이었는지 역사적 자료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지 언정 현재는 어느 지역의 개발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곳곳에서 붉은 흙이 드러나더니 어느새 한국적 유럽풍(?)의 전원주택이 나타난다. 붉은 흙이 파헤쳐진 만큼 누군가의 꿈이 '개발' 되었을 것이다. 변화의 속도는 도시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으로 느껴진다. 지금 이곳은 어떤 꿈을 꾸며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위험'이라는 단어만큼 그 형태와 위치가 낯설고 어색해 보이는 상동 LPG 창고 앞에 흙산을 만든다. 당연히 오히려 낯설어 보이는 붉은 흙이다. 붉은 흙산과 그 위에 환상적인 조명 쇼!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환상적인 빛이 담긴 흙을 가져간다.

'육지환상'은 대부도의 일상 그리고 욕망과 환상을 시각화한다.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인지하지 못했던 /않았던 풍경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쉽게 파헤쳐지고 옮겨지는 흙-육지를 보면 내가 밟 디디고 있는 곳 또한 부지불식간에 어딘가로 옮겨지는 듯하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인지 어딘가에 편입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방향을 알 수 없는 욕망이 붉게 드러난다.

2017년 11월. 손민아



<육지환상, 퍼포먼스 영상 스틸컷, 대부도 상동, 2017>

○ No Exit – Rebel Live Action, Bangkok, 2017

